

## 女科大要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교실  
김윤상

### ABSTRACT

#### A Research of the Ancient Book Named "Yeogwa-daeyo"

Yoon-Sang Kim

Dept. of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Purpose:** Actually until now, there is few historic records concern on oriental OB&GY from late Joseon Dynasty colonized by Japan. therefore, this research was studied in priority with historic background and medical-history for this book and writer.

**Methods:** the relat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books on history, medicine books, essays, and family councils, contents of 《女科大要》 were made a comparative study with 《東醫寶鑑》.

**Results :** As it seems to be accomplished writing and publication of this book, 《女科大要》 at that times, and there is no former days data about the author, 李載建, this research was progressed by dividing into background research and comparison study.

**Conclusion:** there is insufficient report on information of this book and the author, but it is considered that enough value is by existence of a book and person's discovery. Besides, it is thought to need more study on comparison with books same age and exchange with historic persons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Key Words:** The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ncient medical book, medical history, yeogwa-daeyo

“이 논문은 2007년 경원대학교 신진교수연구사업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음”

## I. 緒 論

한방부인과학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조선후기부터 광복 이전에 해당하는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구한말은 미국, 러시아, 청나라 및 일본의 외세에 의한 국가적인 혼란기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서양의학의 교육이 강화되었던 반면에 전통의학이었던 한의학은 강제적으로 탄압 당함으로써 한의학에 관한 연구나 서적의 발간이 더욱 어려워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현대 한방부인과학은 《東醫寶鑑》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景岳全書》나 《濟陰綱目》 등의 중국의학서적과 “經世致用, 利用厚生”의 실학사상이 가미된 《醫門寶鑑》, 《濟衆新編》 및 《醫宗損益》 등의 조선후기 의학서적들의 내용을 근거로 서양의학적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흡수하여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한방부인과학과 관련된 전통 서적인 《女科經綸》, 《女科輯要》, 《傳青註女科》 및 《葉天士女科》 등과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은 《醫學衷中參書錄》, 국가기관에서 저술된 《醫宗金鑑》 등의 서적들이 출간되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이전의 학문을 계승함으로써 현재의 중의부과학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들로서 의미가 있다.

본서는 저술과 발간의 시기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보이고, 저자 역시 한의학 역사에 등재되지 않은 인물이며, 저자가 儒醫로서의 한방부인과학적 의

안, 치료법 및 임상경험에 대한 연구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저자,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 1) 저 자

‘전주이씨대동종약원<sup>1)</sup>’에 따르면 저자인 李載乾의 본관은 全州 新城君派, 자는 大始, 호는 石泉, 계부는 益應, 생부는 永陽君派 祚應, 출생연도는 1868년, 거주지는 京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규장각과 조선왕조실록의<sup>2-4)</sup> 내용을 종합해 보면 1887년 12월 68명의 합격자가 있었던 別試 丙科31에 급제하여 세 차례의 弘文錄 및 都堂錄의 奏薦을 받은 뒤 1894년 3월 통훈대부 弘文館 정5품 校理, 侍講 및 右승을 역임하였고, 1897년에는 中樞院의 四品, 1907년에는 都廳을 지냈으며, 한일합방의 이듬해인 1911년 생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2) 연구자료

大正15년(1926) 경성부 입정동으로 소재지가 되어있는 경향각서점에서 초판 출간된 서적을 [www.auction.co.kr](http://www.auction.co.kr)을 통해 구입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는데, 단행본으로 총 84쪽이고, 調經章 126항(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의로 ‘항’이라 불임), 胎前章 112항 및 產後章 9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간사는 大正11년(1922)으로 기재되어 되어있다.



Fig. 1. 여과대요 겉면



Fig. 2. 서문과 발간 표지

### 3) 연구방법

저자에 대해서는 사료와 후손과의 연락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본서의 구성에 대해서는 편재, 의안 및 처방 등을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한 뒤, 세부 내용은 순서의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한방여성의학의 순서대로 재편집·정리한 후 주로 《東醫寶鑑》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서의 특징적 내용들을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 2. 우리나라 한의학의 역사와 당시의 시대적 배경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668년 이전으로 추정되는 《高麗老師方》을 시작으로 ‘固有醫學’이 성립된 후 고려시대와 조선

초에 이르러 ‘鄉藥醫學’이 정립되었고, 조선중기 《東醫寶鑑》의 출간과 더불어 ‘東醫學’이 정립되었다고 보고 있다<sup>5)</sup>.

조선후기에는 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經世致用, 利用厚生”의 실학사상이 발전하여 의학에 있어서도 실용의학이 싹트게 되었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惠庵 黃度淵이다<sup>5-7)</sup>. 그는 동의보감의 실용화와 시대의변천 및 지리풍토의 변화를 고려한 《醫宗損益》 및 암송에 편하도록 저술한 《古今三統醫方活套》를 편찬하였고, 그의 아들인 愼村 黃泌秀는 부친의 사상을 계승하여 청나라의 汪忍庵을 참고하여 《方藥合編》을 출간하였다<sup>5,8)</sup>.

저자의 주요활동 시기는 조선후기에서 대한제국을 거쳐 한일합방에 이르는 구한말이었는데, 특히 일련의 연구 결과, 일제강점기에서 한의학 변화의 배경에는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명분 중 하나로 서양의학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의학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한 일본 식민정부가 있음이 밝혀졌고<sup>9)</sup>, 이로 인한 의료제도와 교육제도 역시 서양의학이 유입으로 인한 혼란 후 일제강점기에 의한 말살정책으로 기나긴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다.

한편, 중국에서도 청·일 전쟁의 패배와 義和團 사건(1900)을 계기로 “中華思想”이라는 국가적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으면서, 의학에 있어서도 “中西醫匯通”과 “中醫西醫化”의 대립 속에 절충과 병존이라는 대안이 공존하게 됨으로써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sup>10,11)</sup>.

### 3. 여과대요의 특성

#### 1) 편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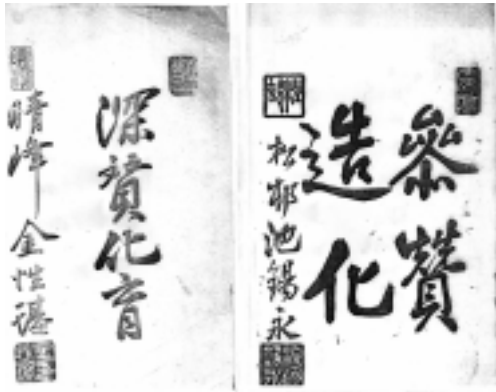


Fig. 3. 발간 축사

서문에 앞서 발간을 축하하는 官府문서(朝報)에 고종 때 典醫를 지냈고, 1920년 이후 동서의학연구회를 조직하여 한의학 살리기에 앞장섰던 晴峰 金性璣(1879-?)의 “深贊化育”이라는 글과 종두법 및 한글연구로 유명하면서 한의사로서 활동했던 松邨(다른 자료들에는 松村으로 되어있다.) 池錫永(1855-1935)의 “參贊造化”라는 축사가 실려 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126항으로 구성된 調經章은 주로 월경이상, 월경통, 경행병, 대하 및 징하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112항과 加 1개항으로 구성된 胎前章은 임신오조, 태동불안, 태전병, 임신병 및 난산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92항과 加 2개항으로 구성된 產後章은 산욕기질환과 산후질환을 별도로 구분하고 기타질환을 함께 기술해 놓았다.

#### 2) 의 안

세 장의 서언을 별도로 기술하여 대강을 설명하면서도 원칙을 중시하였는데, 자세한 변증과 관련된 의안들은 각각의

항목에 기술해놓고 있다. 調經章의 서언은 胎前章 및 妊娠章에 비해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다른 서적에서와 유사하게 調經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月經先期, 月經後期, 頻發月經, 希發月經, 經閉, 崩漏 및 漏下의 경우 調經의 원칙을 중요시한 것은 물론이고, 아울러 정상적인 월경을 하는 경우에는 調經하는 한약을 함부로 투여하지 말라고 하였다.

調經의 방법으로는 淸熱, 溫冷, 補虛, 行滯, 固滑 및 峰陷 등을 제시한 후 월경이상의 원인으로 脾虛, 衝任損傷 및 脂痰凝滯의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첫째 脾虛는 영양부족이나 憂愁思慮로 心을 상하게 되면 유발되며 결과적으로 血枯血閉, 經色希, 希發月經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고, 둘째 성격의 집요, 급함, 분노 및 질투가 있거나 초경 전에 성관계를 일찍 시작해도 肝氣와 衝任脈을 손상하여 崩漏, 頻發月經, 月經先期 등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셋째 膏粱厚味를 많이 먹거나 움직임이 적은 경우 痰涎으로 인해 血海가 소통되지 않음으로써 月經後期, 頻發月經, 月經混濁, 經閉 및 不妊이 생겨난다고 부연하였다.

胎前章에서는 임신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하면서 특히 부부관계와 음식에 대한 것을 강조해서 기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產後章에서는 補虛가 치료의 기본원칙이며, 다른 증상들은 부가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점과 催生法에 대해 강조하였다.

#### 3) 처 방

調經章, 胎前章 및 產後章에 수록된 처방의 총 수는 413개이며 중복된 이수를 배제한 처방의 수는 321개이다. 동의

보감과는 달리 고전의 처방에 대한 출전을 기재하지 않았고, 전서를 통해 가장

많이 인용된 처방은 四物湯과 十全大補湯으로 각각 8회씩이었다.

Table 1. The prescription on the books over third times.

| 인용 횟수 | 처방명    | 항 목   |
|-------|--------|---|
| 8회    | 四物湯    | 調經章 116, 調經章 119, 胎前章 7, 胎前章 23, 胎前章 37, 胎前章 67, 產後章 27, 產後章 32 |
|       | 十全大補湯  | 調經章 10, 調經章 29, 調經章 53, 調經章 72, 產後章 12, 產後章 20, 產後章 27, 產後章 34  |
| 7회    | 地黃丸    | 調經章 4, 調經章 26, 調經章 29, 調經章 38, 調經章 102, 胎前章 109, 產後章 12         |
| 6회    | 加味四物湯  | 調經章 3, 調經章 26, 調經章 36, 調經章 46, 胎前章 7, 產後章 39                    |
| 5회    | 安胎飲    | 胎前章 4, 胎前章 11, 胎前章 19, 胎前章 25, 胎前章 42                           |
|       | 黑神散    | 產後章 3, 產後章 13, 產後章 15, 產後章 17, 產後章 加76                          |
| 4회    | 加減四物湯  | 調經章 31, 胎前章 7, 胎前章 67, 產後章 41                                   |
|       | 加味六君子湯 | 調經章 12, 調經章 116, 胎前章 80, 產後章 7                                  |
|       | 三補丸    | 調經章 3, 調經章 36, 調經章 116, 胎前章 109                                 |
|       | 溫經湯    | 調經章 80, 調經章 99, 調經章 117, 調經章 118                                |
| 3회    | 加味五苓散  | 胎前章 111, 產後章 1, 產後章 39  |
|       | 茯苓湯    | 調經章 71, 胎前章 89, 產後章 12  |
|       | 四君子湯   | 胎前章 67, 胎前章 78, 產後章 加37   |
|       | 逍遙散    | 調經章 43, 調經章 87, 胎前章 18  |
|       | 十灰散    | 調經章 101, 調經章 102, 產後章 32  |
|       | 八物湯    | 調經章 8, 胎前章 72, 胎前章 109  |

#### 4. 본문의 구성

각 장의 내용을 한방여성의학의 항목으로 정리하였고, 특별한 항목의 지정이 곤란한 경우 기타 질환으로 분류하였다.

##### 1) 調經章

126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항과

달리 99항은 石痕章, 100항은 腸覃章, 101항은 崩漏章으로 명명되어 있다. 처음 6항까지는 총론의 개념으로 여성의 성정, 형상 및 복약에 따라 생기는 氣血의 변화와 변증을 제시하고 각각의 처방을 기술하였다.

Table 2. The item grouping of chapter for regulating menorrhoea.

| 한방여성의학 분류          | 여과대요 분류   | 해당 항목                      |
|--------------------|---|----------------------------|
| 월경이상               | 經血不調, 經水不調, 月水不利 및 經脈不調   | 77-78항, 83-87항             |
|                    | 無月經   | 79항, 82항, 88-92항, 95-98항   |
|                    | 月經前期  | 15-22항, 39-42항, 80-81항     |
|                    | 月經後期  | 7-14항, 23항, 39-42항, 80-81항 |
|                    | 希發月經(數月經一行)   | 28-30항                     |
|                    | 頻發月經  | 24-27항                     |
|                    | 行經或前或後  | 31항, 39-42항, 76항           |
|                    | 經水多少  | 34-36항                     |
|                    | 經來不止十日或至半月不止  | 45항                        |
|                    | 經水色, 經水質  | 37-38항, 46-53항             |
| 崩漏                 | 94항, 101-107항   |                            |
| 골반통과 월경근란증         | 月經痛   | 32-33항, 54-61항             |
| 월경전증후군과 기타 장애      | 經來從口鼻咳嗽, 經來面青黃, 經來狂言好見鬼神, 經來嘔吐 및 不思飲食, 經來飲食後卽嘔吐, 經來遍身亂腫, 經來泄瀉, 經來大小便俱出, 43-44항, 62-75항<br>經來常咳嗽, 經來腹大如鼓, 經來大小便如白蟲, 經來潮熱不思飲食, 經來吐衄, 經來上行(經行吐衄), 經行發熱 |                            |
| 여성 생식기 감염          | 赤白帶下, 白帶  | 116-117항                   |
| 기타 여성 생식기에 나타나는 증후 | 陰挺  | 93항                        |
| 부인 비뇨기과학           | 白濁, 白淫, 白帶  | 117-118항                   |
| 징하 및 부인 종양학        | 石瘕, 腸覃, 血瘕  | 99-100장, 108항              |
| 기타질환               | 乾血勞   | 109-110항                   |
|                    | 血虛  | 111항                       |
|                    | 血迷  | 112항                       |
|                    | 流白, 片白, 片血  | 113-115항                   |
|                    | 室女  | 119-125항                   |

2) 胎前章

순서는 122항으로 되어있으나 번호의 오기로 인해 실제 1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66항의 妊娠章은 따로 내용이 없으며 그 이전에 해당하는 8-39항은 胎前病으로, 50-65항까지는 孕婦病으로, 67-82

항까지는 妊娠病으로, 85-93항까지는 ‘因胎而致母病<sup>12)</sup>’의 형태로 구분해서 기술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98항까지는 임신병에 대한 분류이나 99항부터는 산시병에 해당하는 난산에 관한 부분을 기술하고 있다.

Table 3. The item grouping of chapter for pre-childbirth 1(the disease about pregnancy).

| 한방여성의학 분류       | 여과대요 분류  | 해당 항목  |
|-----------------|--|--|
| 태루-태동불안         | 胎動不安, 胎漏, 下血, 傷胎氣 및 胎不安, 妊娠漏胎                                      | 5-7항, 40-49항, 62-64항, 67항                              |
| 임신 복통           | 胎前寒熱, 胎前之寫痰  | 10항  |
| 태태-소산           | 傷胎氣, 子死腹中  | 49항, 111항  |
| 활 태             | 常墮   | 4항   |
| 임신 오조           | 惡阻, 胎前惡阻   | 1-3항, 8항   |
| 임신 대변난          | 胎前大便虛急   | 33항  |
| 임신 설사           | 胎前泄瀉, 妊娠泄瀉   | 31항, 78항   |
| 임신 하리           | 胎前瀉痢, 孕婦下痢, 妊娠痢疾   | 14항, 53-56항, 65항, 79항                                  |
| 임신 중의 소화기 질환    | 胎前腹脹, 食復, 妊娠吞酸   | 22항, 70항, 80항  |
| 임신 부종           | 胎前脚氣, 胎前不降, 孕婦遍身浮腫, 孕婦從脚上腫, 子腫, 子氣                                 | 26항, 39항, 57항, 59항, 88-90항                             |
| 자간              | 子癇, 風瘧   | 87항, 97항   |
| 자만              | 子滿   | 91항  |
| 임신 심번           | 孕婦心氣痛, 子煩  | 61항, 86항   |
| 태기상역            | 子懸   | 85항  |
| 임신 해수           | 胎前咳嗽, 胎前氣急咳嗽, 孕婦咳嗽, 妊娠咳嗽, 子咳                                       | 12항, 18항, 50-51항, 75-76항                               |
| 임신 중의 호흡기계 질환   | 胎前氣急, 胎前咽喉痛, 孕婦傷寒, 妊娠傷寒  | 11항, 36항, 51-52항, 68-69항                               |
| 자 림             | 子淋   | 92항  |
| 임신 소변불통         | 胎前小便不通(轉滯), 孕婦小便不通   | 20항, 58항   |
| 임신 신양           | 胎前陰門痒  | 34항  |
| 임신 중의 피부 질환     | 全身發斑   | 71항  |
| 임신 탄탄           | 胎前癱瘓   | 28항  |
| 임신 실음           | 孕婦暴啞不語   | 96항  |
| 임신 중 신경 및 정신 질환 | 胎前怔忡, 胎前中風, 胎前頭痛, 胎前忽然倒地, 胎前耳鳴, 妊娠中風, 妊娠頭痛, 妊娠癲狂并胡說症, 妊娠痴極, 子鳴, 臆躁 | 21항, 27항, 30항, 32항, 38항, 72항, 81항, 83-84항, 93-95항, 98항 |
| 임신 요통           | 胎前腰痛, 孕婦腰痛   | 29항, 60항   |
| 산과적 출혈          | 胎前漏血(係漏), 胎前赤帶漏血, 胎前紅動, 胎前下血                                       | 15항, 17-19항, 25항                                       |
| 임신 중의 혈액 질환     | 胎前消渴   | 37항  |
| 임신 중의 감염성 질환    | 胎前白帶, 妊娠中暑, 妊娠中濕, 妊娠瘡疾   | 16항, 73-74항, 77항                                       |
| 기 타             | 胎前潮熱氣痛, 胎前衄血, 胎前酸懶, 胎前陰門脹, 胎前乳腫, 妊娠目鼻咽喉唇口諸症                        | 9항, 13항, 23-24항, 35항, 82항                              |

Table 4. The item grouping of chapter for pre-childbirth 2(The disease about delivery).

| 한방여성의학 분류                | 여과대요 분류                                 | 해당 항목              |
|--------------------------|---|--------------------|
| 태위부정                     | 難産問答, 逆産, 橫産, 側産, 碍産, 盤腸生               | 105-109항           |
| 조기양막파수                   | 難産七條                                    | 104항               |
| 자연 임신                    | 難産七條                                    | 102항               |
| 난 산                      | 難産豫防, 難産七條, 難産問答, 逆産, 橫産, 側産, 碍産, 盤腸生   | 99-109항            |
| 만출력 이상에 의한 난산            | 難産七條                                    | 102항               |
| 태아의 태위, 태향 및 발육이상에 의한 난산 | 孕婦橫逆不順, 難産七條, 難産問答, 逆産, 橫産, 側産, 碍産, 盤腸生 | 101-102항, 105-109항 |
| 기 타                      | 欲産, 産子絶氣不啼                              | 103항, 111항         |

Table 5. The item grouping of chapter for post-childbirth 1(the disease about delivery).

| 한방여성의학 분류 | 여과대요 분류 | 해당 항목       |
|-----------|---------|-------------|
| 포의불하      | 胎衣不下    | 1항, 8항, 56항 |

Table 6. The item grouping of chapter for post-childbirth 2(The disease about postpartum).

| 한방여성의학 분류  | 여과대요 분류  | 해당 항목   |
|------------|--|---|
| 산후 혈훈      | 産後血暈, 産後昏眩, 産後見黑花昏眩  | 2-3항, 29항, 52-53항   |
| 산후 발열      | 産後發熱, 産後乍寒乍熱   | 16-17항  |
| 산후탄탄       | 産後中風   | 21항, 55항, 74항   |
| 산후 오로부절    | 産後惡露不止   | 27항, 46항  |
| 산후 오로불하    | 産後血去不盡, 兒枕痛, 産後惡露不下, 産後惡露不行  | 13-14항, 28항, 67항, 71항   |
| 산후 복통      | 産後腹痛, 兒枕痛, 産後小腹腰痛  | 13-14항, 65항, 68-69항   |
| 산후 대변난     | 産後大便閉塞不通   | 38항   |
| 산후 설사      | 産後癩亂吐瀉, 産後泄瀉痢疾   | 36-37항, 加37항, 47항, 49항, 60항   |
| 산후 소변임통    | 産後尿血, 産後淋  | 23항, 40항  |
| 산후 소변불통    | 産後小便不通短少   | 39항   |
| 산후 소변빈삭-실금 | 産後小便頻數遺尿不禁   | 24항   |
| 산후 자한-도한   | 産後汗出不止   | 20항   |
| 산후신통       | 産後心痛, 産後全身疼痛, 産後頭痛, 産後脇痛, 産後血作痛症, 産後血氣痛, 産後血痛, 産後身疼痛   | 6항, 12항, 15항, 30항, 41-42항, 51항, 54항, 60항, 62항, 70항  |
| 산후 요통      | 産後腰痛, 産後腰腿疼痛, 産後小腹腰痛   | 11항, 61항, 65항, 67항, 68-69항  |
| 산후 정신이상    | 産後乍見鬼神   | 5항  |
| 산후 부종      | 産後浮腫, 産後氣臑, 産後水腫血浮腫  | 26항, 63항, 73항   |
| 결 유        | 産後乳汁不通, 産後乳少無乳   | 35항, 75항  |
| 기 타        | 産後子宮脫出, 産後腹脹滿悶嘔吐惡心, 産後口乾痞悶, 産後咳嗽, 産後喉中氣急喘促, 蓐勞, 産後瘡疾, 産後渴, 産後傷寒, 産後咳嗽, 産後不語, 産後暴崩, 産後癩塊, 産後玉戶不斂, 産後子宮突出, 産後癩疽突出, 産後譫語, 産後吊陰, 産後氣虛, 産後經血不調, 産後月經勞, 産後經滯不行, 産後呃逆, 産後小兒死乳不回 | 4항, 7-10항, 12항, 18-19항, 22항, 25항, 31-34항, 43-45항, 49-50항, 57항, 59항, 60항, 64항, 69항, 72항, 76항 |



3) 産後章  
 다른 장과 달리 40항까지는 문답형으로 기술되어 있고, 1항부터 46항까지는 産後諸證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61항부터 74항까지는 다시 산후질환에 대해 열

거한 것으로 보아 이는 1항부터 46항까지는 산욕초기의 질환인 것에 비하여 61항부터 74항까지는 산욕중후기 및 기타 질환으로 볼 수 있다.

Table 7. The item grouping of chapter for post-childbirth 3(the other disease of women).

| 한방여성의학 분류   | 여과대요 분류                      | 해당 항목  |
|-------------|------------------------------|--------|
| 부인 비뇨기과학    | 婦人小便下血下膿                     | 78-79항 |
| 기타 질환       | 婦人抽風, 婦人抽鷄風, 婦人抽麻風, 婦人腿疼抽風腰痛 | 80-83항 |
| 기타 질환       | 婦人發麻                         | 84항    |
| 기타 질환       | 婦人腰痛                         | 85항    |
| 기타 질환       | 男女腰腿麻木疼痛                     | 86-89항 |
| 부인 비뇨기과학    | 傷寒腹痛淋疾                       | 90항    |
| 월경이상        | 婦女傷風下血                       | 91항    |
| 징하 및 부인 종양학 | 婦人癥瘕                         | 92항    |

### 5. 기 타

1) 求嗣에 대한 내용의 축소  
 《東醫寶鑑》을 비롯한 다른 서적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던 불임과 관련된 부

분이 본서에서는 따로 책정되지 않았음은 물론 내용도 극히 드물어 표 8의 내용만 찾아볼 수 있다.

Table 8. The item grouping of infertility.

| 항 목    | 내 용  |
|--------|--|
| 調經章 47 | 治經來如綠水此症全無血色乃太虛大寒不可用涼藥用烏鷄丸服半月非但症愈兼能懷孕也                   |
| 調經章 76 | 治經來或前或後此症七情所傷之致使血衰氣盛經水不調或前或後或多或少色淡如水紫血塊或崩漏帶下或腹疼痛致不孕用下方主之 |
| 調經章 84 | 治經水不調或前或後或多或少色淡如水或紫色黑血塊或崩漏帶下肚腹疼痛子宮虛冷無子不孕用下方              |

Table 9. The item grouping of personality.

| 항 목     | 내 용   |
|---------|---|
| 調經章 1   | 如德盛性亦溫和素無他疾者責其血盛且有熱也用下方主之   |
| 調經章 2   | 如性其急躁多怒多妬者責其血氣俱熱且有鬱也用下方主之   |
| 調經章 8   | 如德盛溫和素無他疾者責其血虛少也用下方主之(經過期而後行者)  |
| 調經章 9   | 如性躁急多怒多妬者責其氣逆血少也用下方主之(經過期而後行者)  |
| 調經章 25  | 如性急多怒者脾胃衝任用下方主之(一月經再行)  |
| 調經章 43  | 治月經時血氣發熱論其症因婦人性急或行月經時房事腹腸脇中結塊一成如鷄子左右二脇月水不行交成五心發熱頭目昏花暗咳嗽生痰一年半年不治內瘦泄瀉百無一治先治其血立服逍遙散後服紫菀湯 |
| 胎前章 100 | 如胎氣本慳不可服上瘦胎丸欲防難產用下方主之   |

2) 性情에 관한 부분의 강조  
 본서에서도 역시 여성에게 있어서 성정과 관련된 질환의 발생을 중시하여 7차례에 걸쳐 언급하였고, 이를 표 9에서 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3) 肥瘦에 대한 부분의 강조  
 본서에서는 환자의 형상과 관련된 肥瘦에 대한 부분을 17차례에 걸쳐 비교적 강조하였고, 이를 표 10에 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Table 10. The item grouping of an external figure.

| 항 목     | 내 용  |
|---------|--|
| 調經章 3   | 如形瘦素無他疾者責其血熱也用下方主之   |
| 調經章 4   | 如形瘦且熱者責其衝任內傷腎虛血枯血少血閉之症也用下方主之   |
| 調經章 6   | 如形肥多痰多鬱者責其血虛氣熱也用下方主之   |
| 調經章 10  | 如形瘦素無他疾者責其氣血俱不足也用下方主之(經過期而後行者)   |
| 調經章 11  | 如形瘦食少者脾胃虛弱氣血虛少也用下方主之(經過期而後行者)  |
| 調經章 12  | 如形瘦及飲食過者濕痰壅滯軀肢迫塞也用下方主之(經過期而後行者)  |
| 調經章 13  | 如形瘦多痰者責其脾胃虛弱氣血失養也用下方主之(經過期而後行者)  |
| 調經章 29  | 如瘦人責其脾胃弱氣血虛也用下兩方(數月經一行)  |
| 調經章 30  | 如肥人責其多痰兼氣血虛用下方兼服蒼沙導痰丸(數月經一行)   |
| 調經章 32  | 桃仁四物湯 當歸尾 川芎 赤芍藥 牡丹皮 香附子 玄胡索 各一兩 生地黄 紅花 各五分 桃仁祛皮尖 二十五枚 如瘦人有火加黃連酒炒 黃芩酒炒 各一錢 如肥人有痰加枳殼蒼朮 各一錢(數月經一行) |
| 調經章 33  | 如肥人經水過後腹痛者虛中有滯也用下方主之   |
| 調經章 34  | 治經水多少瘦人經水來少者血虛用下方主之  |
| 調經章 35  | 如肥人經水來少者痰凝經墮也用下方主之   |
| 調經章 72  | 治經來腹大如鼓此症月水不來二三月以至七八個月腹大如鼓如孕一日崩下其血包有物如蝦蟆子昏迷不知人事體瘦者不治體壯者只服下方                                      |
| 調經章 116 | 帶下之病婦人多有之赤者屬熱兼虛兼火治之白者屬濕兼虛兼痰治之年久不止者以補脾胃爲主兼升提大抵瘦人多火肥人多痰要知此候赤帶用前四物湯加黃芩黃連湯再加升麻丹皮湯主之兼服三補丸白帶加君子湯       |
| 胎前章 2   | 治瘦人兼痰兼熱者(妊娠惡阻)   |
| 胎前章 25  | 治胎前下血動胎若婦人壯盛者三五日內急以安胎散救之如形瘦冷汗面色如灰四肢無力乃久精之病神色已去不必治之俱用安胎飲  |

4) 한약의 순차적 처방  
 본서에서의 치료방법 중 한 가지 질환에 단일한 처방을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순차별 처방의 운용을 기술한 곳이 12차례로 이를 표 11에 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5) 저자의 경험방  
 본서에 수록된 처방들은 古方와 다소 상이한 점도 많이 발견되었지만, 저자가

특별히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강조한 10개 처방에 관해 표 12에 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6) 難産七條  
 胎前章 102항에 ‘難産七條’라 하여 難産 시에 명심해야 하는 상황과 필요한 처방을 기술해 놓았는데 본 저자가 이를 의역해 표 13에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Table 11. The item grouping of serial prescription treatment.

| 항 목     | 내 용  |
|---------|--|
| 調經章 39  | 治月經前論其症血來行如胆水五心作熱腰疼并腹痛面色痿黃不思飲食及血氣虛先必退熱後調經次用血勝而預先服 <b>黃芩散</b> 後用 <b>調經丸</b>   |
| 調經章 41  | 治月經後論其症經來如漏水頭目昏花小便作痛喉口臭如魚腥惡吐宜先服 <b>理經四物湯</b> 後服 <b>當歸丸</b>   |
| 調經章 42  | 治月經或前或後論其症因脾土不勝不思飲食由此血虛經水或前或後服 <b>紫金丸</b> 次月飲食多進經水不通只宜調脾土勝血氣均自然應期而後服 <b>紫金丸</b>                                      |
| 調經章 43  | 治月經時血氣發熱論其症因婦人性急或行月經時房事腹腸脇中結塊一成如鷄子左右二脇月水不行交成五心發熱頭目昏花暗咳嗽生痰一年半年不治內瘦泄瀉百無一治先治其血立服 <b>逍遙散</b> 後服 <b>紫菀湯</b>               |
| 調經章 116 | 帶下之病婦人多有之赤者屬熱兼虛兼火治之白者屬濕兼虛兼痰治之年久不止者以補脾胃爲主兼升提大抵瘦人多火肥人多痰要知此候赤帶用前 <b>四物湯加黃芩黃連湯</b> 再加升麻丹皮湯主之兼服 <b>三補丸</b> 白帶加 <b>君子湯</b> |
| 調經章 117 | 婦人多有白濁白淫白帶之症亦不同其治亦有不同白帶者時常汲出清濁粘此下元虛損之症也用前帶不止法治之白濁者隨小便而來濁如泔此胃中濁氣滲入膀胱也用 <b>加味二陳湯</b> 次用 <b>溫經湯</b>                     |
| 調經章 119 | 室女經痛不通飢瘦膚熱面黃如勞瘵蓋室女經脈與婦人不同隱藏於胞絡漸入子宮至十三歲見出苟或喜怒寒溫失宜此經痛不行要先服 <b>四物三五劑</b> 使癸水生子宮然後以 <b>救產丸</b> 引導流通經脈自然通矣勿信用醫治方用下方主之     |
| 胎前章 18  | 如胎前氣急咳嗽氣緊動紅大嗽不止其水每月應期而來目乾心熱先服 <b>逍遙散</b> 後服 <b>紫菀湯</b>   |
| 胎前章 19  | 治胎前紅動皆因飲食跌傷惡血破來如水不止服 <b>膠艾湯</b> 止血次用 <b>安胎飲三五貼</b> 胎安瘦者不治用 <b>膠艾湯</b> 主之   |
| 胎前章 20  | 治胎前小便不通此症名轉脬急用 <b>車前子八珍散</b> 後服 <b>八味丸</b> 主之  |
| 胎前章 27  | 治胎前中風牙關緊閉氣痰壅滿不知人事皆因食生冷兼生中風先服 <b>黃臘膏</b> 後服 <b>桃風湯</b>  |
| 產後章 45  | 產後痲痘突出先用 <b>連翹散</b> 後用 <b>黃蠟膏</b> 塗之   |

Table 12. The experience prescription of the writer.

| 항 목     | 내 용  |
|---------|--|
| 調經章 88  | 治經閉不通赤白帶下婦女結燥瘡症初起諸般寒疼痛皆效驗過數次用下方( <b>五毒萬病僭鍼丸</b> )主之  |
| 胎前章 45  | <b>治保胎方</b>  |
| 胎前章 70  | 如飲食失節復發熱者此食復也用下方( <b>加味紫蘇和胎飲</b> )主之   |
| 胎前章 101 | 治孕婦橫逆不順兼能安胎生產方烈於後生產神方( <b>眞仙飲</b> ) 右方稱遵準古泡製加生薑三片空心熱服能治難產子死腹中六七日不下一付立下如產婦將足月預服一二貼臨產再服一貼立刻催生此方又能安胎之眞仙方也必要留神                           |
| 胎前章 112 | <b>產後無憂散</b> 酒水煎半食遠服 右方產後三日內用能除百病  |
| 產後章 33  | 產後痲塊問何也曰此惡露未盡之害也蓋由產婦惡露不來或來不盡或產婦畏藥雖有痛苦強忍不言或主人與醫家堅執產婦補虛之說不可輕用祛血之藥以致敗血停留不散結聚成塊依附子宮妨碍月水但絕嗣息夭其天年欲治此者必用丸藥以漸磨之非湯散旬日之用力用下方( <b>香附地黃丸</b> )主之 |
| 產後章 60  | 產後一月內不拘寒熱白痰頭痛腹痛昏憤不語咳嗽氣喘吐瀉痢疾風搖等症服之至效此方( <b>益母連子飲</b> )不可加減勿爲誤人身命  |
| 產後章 66  | 產後諸症治法( <b>當歸通理飲</b> )   |
| 產後章 80  | 治婦人抽風驗過效方( <b>竺已飲</b> )  |
| 產後章 89  | 治男女腿疼效驗方( <b>理勞飲</b> )   |

Table 13. the seven provision about dystocia.

|     |   |
|-----|---|
| 제1조 | 임신은 氣가 주이고 血은 보조적이어서 氣行則血行, 氣滯則血滯 하게 된다. 부자들은 임부를 보호하기 위해 쉬게만 하므로 氣血의 소통이 원활치 않아 분만 시 태아운동이 부족해 혼절할 수 있고, 반면에 가난한 집에서는 힘들게 일을 하여 휴식이 필요한 차이가 있지만 난산에 공히 達生散에 人蔘, 白芍藥을 거하고 香附子, 烏藥 各1錢을 加하여 복용시켜야 한다.                                    |
| 제2조 | 임신 6-7개월에 胎兒關係를 삼가지 않아 精이 瘀血과 胞中에 모이면 태아에 비해 산도는 작아 난산이 되는 것을 보았다. 분만 시 머리 위에 백막이 한 겹 덮혀 있거나 속세에서 ‘載白生子’라고 부르는 부레풀같은 것이 덮혀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마땅히 瘦胎丸을 복용시켜야 한다.  |
| 제3조 | 임부의 집에서 점이나 굿을 하면 임부가 너무 놀라 神과 氣를 잃을 수 있고, 분만 시 낫선 사람들의 껌속말에 임부가 두려워하게 되면 난산이 될 수 있으니 점이나 굿은 피해야 하며, 익숙한 온파 1-2명을 곁에 있으면서 낫선 사람을 막음과 동시에 온화한 말만 하도록 해야 한다.  |
| 제4조 | 분만 시 태아운동이 시작되고 양수가 나오면서 요복통이 있으며 눈에 불이 보이거나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正産’이다. 만약 태아가 움직이지 않거나 양수가 터지지 않으면서 복통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은 ‘弄産’인데 온파가 경솔하여 힘을 과하게 쓰게 하면 정작 분만 시에는 힘이 없어 난산이 되므로 그런 경우 催生湯을 사용한다.  |
| 제5조 | 분만 시 양수가 터졌을 때 태아운동과 용력이 맞으면 태아가 내려오고, 다시 태아운동이 있을 때 온파가 힘을 주면 더 내려오게 되는데, 온파가 양수를 터진 것만 보고 태아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나 순서가 되지 않았는데 경솔하게 억지로 분만시키려 하면 횡산, 도산 및 역산 등이 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좋은 온파를 구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
| 제6조 | 젊은 초산부가 양수가 터지고 태아가 나와야 하지만 자궁의 긴장으로 인한 통증으로 몸에 힘을 주고 다리를 벌리지 못하여 분만하지 못하거나 다산부가 氣血의 허약으로 양수가 터졌지만 자궁이 乾澁하여 분만하지 못하는 경우 잠시 후 온전해지면 다행이지만 결국 천명에 맡겨야 한다.   |
| 제7조 | 임신 시 양수는 氣가 잘 소통되고 血이 영양을 잘 공급하여 자궁에 흘러들어서 형성되는 것인데, 흐르는 물에 물고기가 살고 고인 물에 물고기가 없는 것과 같다. 양수가 아직 터지지 않았는데 힘을 지나치게 써서는 안되고, 양수가 이미 터진 후에 맞춰서 힘을 사용해야 하는데, 힘이 부족하면서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게 되면 잘 움직이지 못하고, 氣血의 閉阻로 양수가 말라서 난산이 된 경우 催生丸의 사용을 숙지해야 한다. |

### III. 考 察

우리나라의 한의학에 있어서 구한말을 거쳐 일제강점기까지의 70여년 동안은 수많은 혼란과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조선후기 실학사상을 기반으로 한 실용의학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 열강들의 정치적 외침에 풍전등화와 같던 시대적 배경은 서양의학의 유입과 일제강점기의

한의학 말살 정책에 의해 학문적 발전, 교육 및 의료제도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의 과거로 남게 되었다.

특히, 그 시기의 한방부인과학에 있어서는 三木榮의 《朝鮮醫書誌》에 ‘臨産注意書’로 한 페이지만 소개된 바 있는 《臨産預智法》이 최근 발견되어 보고된 것이 전문서적으로 유일하니<sup>13)</sup>, 본서의 발견은 전통의학을 계승하는 발자취이라

는 점 등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 조선후기에는 부계 근친자에 한해 입양이 허락되던 조선전기에 비해 부계 원친자까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양자 제도가 활성화된 영향도 없지 않겠지만, 반면에 적자입후위반에 대한 처벌도 엄격했기 때문에 계부인 益應이 슬하에 손이 없어 저자가 입양된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저자의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파종회 대표인 이○○와 어렵게 연락이 되어 조사한 바 저자의 아들은 영친왕의 일본행에 동행한 사절이었고, 귀국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종손으로서의 소임을 다했지만, 한국전쟁 시 건강악화로 사망한 뒤 손자, 증손자들은 종손의 역할은 차제하더라도 묘소 관리조차 하지 않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갑좌로 되어 있는 묘소의 실제 위치는 알 수 없으며, 저자가 儒醫였다는 사실이 종가는 전혀 전해지지 않아서 본서 저술의 정확한 계기를 알 수 없었다.

저자는 홍문관의 관료로서 궁중의 經書·史籍의 관리, 文翰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다양한 의서들을 접할 기회가 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제목에서 ‘女科’와 ‘胎前章’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대의 의서도 참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저자생몰연도(1911년), 발간사(1922년) 및 발행년도(1926년)의 차이는 비슷한 시기의 《東醫壽世保元》이 李濟馬의 제자들 모임인 함흥군 율동 契에서 발간했던 것처럼 저자생몰 후 문하생이나 가까운 지인에 의해 본서가 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의 의학은 실용의학이 새롭게 대두된 한편 ‘四象醫學說’을 주장했던 함흥의 東武 李濟馬(1837-1900)와 張介賓의 영향을 받아 朱丹溪의 이론에 반대하는 “陽常患不足, 陰常患有餘”의 ‘扶陽論’을 주장하면서 《素問大要》을 간행한 石谷 李奎峻(1855-1923)과 같이 한의학의 이론을 탐구하는 儒醫들도 있었고, 太醫院 典醫 출신들로 三登郡守 재직 시 소아진료로 유명하여 “小兒名醫 崔三登”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小兒醫方》이라는 임상서 저술한 夢庵 崔奎憲(1846-?)과 조선시대 최후의 칙찬 한의서인 《醫方撮要》를 저술한 李峻奎 등도 당시의 대표적인 한의사였다<sup>5)</sup>.

개항과 일제강점기동안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배경은 의료제도에 있어도 나타나는데, ‘大典會通(1865)’과 ‘六典條例(1867)’의 반포로 內醫院, 典醫監 및 惠民署 등의 ‘三醫司’체제로 유지되다가 1884년 갑신정변 때 민영익의 자상을 알렌이 치료한 후 惠民署를 廣惠院이라 하였고, 1년 후 濟衆院으로 개명되면서 국가의료의 축이 동의학에서 서양의학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1897년 典醫司가 太醫院으로 개칭되면서 국가의료를 담당했던 ‘三醫司’체제가 왕실의료기관으로 축소 전락하였다<sup>5,15,16)</sup>.

1905년 을사조약 체결과 1906년 통감부 설치 후 본격적인 일본제국주의의 한의학말살정책이 시작되었는데, 廣濟院에서 예고 없이 서양의학 시험을 실시하여 한의사를 낙제시키고, 1907년 ‘정미7조약’과 ‘군해산령’으로 군의를 축출함으로써 한의사들은 제도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sup>5,15)</sup>.

또한,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1891년 고

시제 폐지와 1895년 전의감제도 폐지로 인해 의학교육기관이 없어졌고, 1899년 ‘醫學校官制’의 반포와 더불어 한의사들과 의사들을 교관에 임명하여 서양의학의 의사를 양성하였는데, 비록 초보적이었으나 동서의학의 교류를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sup>5,15)</sup>.

1904년 侍從兼 典醫였던 장용준, 홍철보 등이 전통의학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청원으로 1906년 ‘同濟學校’를 설립하였지만 경영난으로 폐교되었고, 1910년 한일합병 후 발족한 ‘朝鮮醫士總合所’와 1913년 ‘醫生規則’의 반포에 저항했던 ‘全鮮醫會’의 강습소로 명맥을 유지하던 것마저도 1916년 관헌에 의해 모두 해산되면서 사립강습소만 존속하게 되었다<sup>15)</sup>.

한편, 구한말 이전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東醫’는 정치가나 대학자들 중에서 의학의 정통적인 학리와 치료법을 연구 규명하여 의약계에 제공하며 철저하게 인술을 지키는 의학자들인 ‘儒醫’, 외국을 개설하고 환자에게 의술을 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醫員’ 및 약재를 매매하는 상인으로 약성에 밝고 심약의 능력이 있던 ‘藥商’ 등의 구분이 있었는데, 1900년 ‘醫士規則’이 반포되면서 모두 ‘醫士’로 명칭을 통일하였고<sup>5,15,17)</sup>, 1912-1914년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과 ‘醫生規則’ 등의 한의학 관련법령을 통해 1914년 최초의 영구면허자를 제외한 신규면허자는 5년 임시면허를 부여함으로써 한의사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는 한편, 서양의학 의사는 스승의 뜻을 가진 ‘醫師’로, 한의사는 학생의 뜻을 내포한 ‘醫生’이라 규정함으로써 한의학의 지위를 서양의학보다 격하시켰다<sup>18)</sup>.

金性璣와 池錫永은 비슷한 길을 걸으면서도 한일합방이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게 되는 두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축사를 써주었다는 사실을 볼 때 당시 저자의 지명도를 대변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일합방을 전후로 金性璣는 고종 때 典醫를 지낸 후 ‘賣國七逆臣’ 중의 한명인 趙重應과 함께 ‘全鮮醫會’와 ‘大正親睦會’ 등의 활동을 함께 했던 반면에 池錫永은 일본의 간곡한 요청에도 ‘大韓醫院’에서 물러나 ‘牛痘保嬰堂’에서 소아진료에 전념하였지만, 1920년 이후 金性璣는 오히려 한의학 살리기에 앞장선 반면 池錫永은 우리나라 서양의학의 역사 속으로 흘러들어 가게 된 점은 아이러니컬하다고 볼 수 있다<sup>19-21)</sup>.

본서의 의안을 살펴보면 중국 의서들이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萬全의 《婦人秘科》와 《廣嗣記要》, 陳自明의 《婦人大典良方》 및 張介賓의 《景岳全書》의 의안과 처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약물을 가감하는 방법은 吳崑의 《醫方考》의 형식과 유사한데<sup>22)</sup>, 이는 《東醫寶鑑》에서 다루지 못한 明靑代의 저작에서 유래한 학문적 혹은 임상적 성과를 유입하여 재편한 《醫門寶鑑》, 《醫宗損益》 및 《方藥合編》 등의 조선후기 한의학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수록된 처방을 살펴보면 한방부인과학의 대표적 처방인 四物湯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가감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18회 사용되었고, 十全大補湯, 地黃丸 등이 그 뒤를 이어 각각 8회, 7회로 빈용된 처방이다. 한편, 平胃散과 逍遙散 등은 고방과 명칭은 같으나 약물의 구성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처방은 있으나 구성

약물이 빠진 경우도 있다.

본문의 내용 중 調經章에서는 月經不調, 月經痛, 經行病, 帶下, 癥瘕 및 기타 질환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月經先期와 後期는 《東醫寶鑑》에서 血熱과 血虛로 구분한 것에 《景岳全書》 및 《婦人秘科》를 참고하여 血寒, 性情 및 肥瘦의 구분을 더하였고, 희발월경이나 빈발월경에서는 性情, 肥瘦 등의 차이를, 經質에 대해서는 형태에 관해 《東醫寶鑑》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월경량의 이상에서는 《東醫寶鑑》과 유사하게 虛實로 구분하였고, 經行發熱과 月經痛의 경우 임상처방은 비교적 많으나 의안에 있어서는 《東醫寶鑑》보다 완성도가 부족한 편이다<sup>22-24)</sup>.

無月經에 대해서는 《東醫寶鑑》에서 제시한 血枯, 血閉, 濕痰 및 產後失血過多와 내용상 대동소이하고, 崩漏에 관해서는 《東醫寶鑑》에서 濕熱下注, 心火妄動, 胞絡絶을 원인으로 보고 治標, 除濕清熱 및 升舉胃氣의 치료법을 제시한 것에 반하여 본서에서는 中氣虛弱과 積熱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王淑和의 止血, 清熱, 補虛의 치료대강을 제시함으로써 《濟陰綱目》의 단계적 치법과 더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sup>23,24)</sup>.

帶下에 관해서는 《東醫寶鑑》에서 濕熱鬱結, 胃中積痰 및 瘀血 등의 實證으로 파악하면서 肥瘦에 따른 구분을 기재하였는데, 본서에서는 虛證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하였고, 室女에 관한 내용은 두 서적 모두에서 그 특이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sup>23,24)</sup>.

癥瘕에 관해서는 《東醫寶鑑》에서 “血滯不行이면 成瘕作痛하므로 行氣破血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과 본서 역시

동일하나 產後章에도 관련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이 癥瘕의 발생과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sup>23,24)</sup>.

한편 본서에서는 《東醫寶鑑》에 비해 經行病에 대해 14개의 항목을 통해 좀더 자세히 기술하였고, 《東醫寶鑑》 胞門과 婦人門 이외의 小便門, 虛勞門 등에 白濁, 白淫, 白帶, 陰挺, 乾血勞, 血虛, 血迷 등에 대해서도 기술해놓았다<sup>24)</sup>.

胎前章은 《東醫寶鑑》보다 훨씬 자세히 기술하였는데, 66항의 妊娠章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 앞서 기술된 胎前의 의미는 초기임신, 이후의 내용은 중기임신으로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85-93항의 子懸章, 子煩章, 子癩章, 子腫章, 子氣章, 子滿章, 子淋章 및 子鳴章 등은 태아가 성장함에 따라 임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因胎而致母病’으로 구분한 점도 특징적이다<sup>12,24)</sup>.

胎前諸病에 관해서는 《東醫寶鑑》에서 언급한 惡阻, 胎動胎漏, 半產 등은 본서와 유사하지만, 產前諸證의 경우 본서에서는 30여 항목의 胎前病, 10개 항목의 孕婦病, 14개 항목의 妊娠病 및 9개 항목의 因胎而致母病들을 상세히 기술해 놓았으며, 妊娠癲狂并胡說症과 妊娠痴極의 항목이 있음에도 《東醫寶鑑》에서는 婦人雜病으로 분류한 臟躁症을 胎前章에 포함시킨 것은 《婦人大全良方》과 같이 임신과의 상관성을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sup>23-25)</sup>.

臨產과 관련해서 《東醫寶鑑》에서는 난산을 예방하는 保產과 十產候를 언급한 뒤 催生, 胞衣不下를 위한 처방을 주로 언급하였는데, 본서에서는 102항에서 ‘難產七條’를 제시하여 難產의 원인, 주

의사항, 해결방법 및 구급방 등 이외에도 온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104-111항에 걸쳐 ‘難産問答’을 통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sup>23,24)</sup>.

마지막인 産後章은 1-46항에 걸쳐 産後諸證을 언급한 뒤 47-57항까지는 그중 비교적 위중한 질환에 대해 기술하였고, 《東醫寶鑑》과 달리 본서에서는 58항에 産後保産을 기재한 뒤 다시 59-76항까지 재차 산후질환을 언급함으로써 産後病을 산육기인 분만 초기와 중후기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되며, 마지막 77항에서는 산후질환의 예방원칙으로 調養血氣를 제시하여 《東醫寶鑑》의 大輔氣血과 逐瘀破血을 포괄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78-92항에 걸쳐 抽風, 發麻, 傷風下血 및 癥瘕 등의 婦人雜病을 기술함으로써 내용은 다르지만 구성상 《東醫寶鑑》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sup>23,24)</sup>. 또한, 《東醫寶鑑》에서 兒枕痛을 비롯한 21개 항목의 산후병을 언급한 반면, 본서에서는 44개 항목의 산후 초기 질환, 4개의 위중한 질환 및 16개 항목의 산후 중후기 질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분만 직후 産後子宮脫出, 産後子宮突出 및 産後癥瘕突出 등을 3개 항목에 걸쳐 강조하여 언급한 점은 특징적이다<sup>24)</sup>.

본서에서 가장 큰 의문점은 대부분의 한방부인과학 전문서들에서 비중있게 다루었던 求嗣의 내용이 없는 것인데, 오직 調經章의 3개 항목에서 “七情所傷으로 血衰氣盛하거나 자궁이 虛冷한 경우 불임이 되고, 太虛大寒한 것을 교정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儒醫라는 배경으로 인해 불임환자를 거의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용이 누락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서에서는 《婦人秘科》의 영향을 받아 性情을 비교적 중요시 하였는데, 덕성이 있고 온화한 성격을 가진 여성과 조금하고 화를 잘 내며 질투가 많은 여성이 증상은 같더라도 병인과 치료법의 상이함을 언급하였고, 명나라와 조선후기의 의학서적에서 볼 수 있는 肥瘦에 따른 병인과 예후의 차이도 17개 항목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서의 “肥人面白氣虛多痰, 瘦人面黑陰虛有火”의 원칙과 달리 본서에서는 肥인에 “多鬱”을 추가로 언급한 차이점이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胞脈閉로 인한 經閉인 경우 먼저 三和湯 玉觸散으로 降心火한 후 五補元, 衛生湯으로 補脾補血하라”는 《儒門事親》에서 유래한 치료법을 제시하였는데, 본서에서는 12항목에 걸쳐 月經不調, 經行發熱, 帶下, 白濁, 室女經痛不通, 胎前氣急, 胎前紅動, 胎前小便不通, 胎前中風 및 産後癥瘕阻突出 등의 다양한 질환에서 순차적인 치료법을 제시하였고<sup>24)</sup>, 저자의 임상적 경험을 엿볼 수 있는 10여개 항목의 경험방이 기술되어 있다.

끝으로, 胎前章의 102항에 기술된 ‘難産七條’는 《婦人大全良方》 産難門 産難論第一을 간추리고 내용을 덧붙여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한방부인과 영역에서 산과가 배제되면서 관심이 줄게 되었지만 저자의 생존 당시에는 온파와 밀접하게 분만의 보조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게 해주는 자료라 생각되어 본 저자가 의역하여 정리하였다<sup>25)</sup>.

그 외 胎前章 93항에 있는 子鳴章에서



는 “以豆撒地令母頻々揀取子復含著則止”라 하여 ‘마메마키(豆まき)’라는 일본의 민간요법도 흡수되어 있고, 産後章 10항에 있는 産後喉中氣急(及)喘促에서는 “急爲鞋底灸熱於小腹上下撫磨”라 하여 안마요법도 기술되어 있으며, 産後章 16항에 있는 産後發熱의 처방인 人蔘當歸湯에서는 補陰藥을 처방할 때 乾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점도 특색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女科大要》는 의학의 구성이나 기록의 완전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고, 서적의 발간과 관련된 구체적 정황에 대한 파악이 미진한 점이 많지만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사이의 현존하는 유일한 한방부인과 전문서로서의 의미와 저자 李載建 또한 우리나라 한의학 역사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儒醫로서 전통의학 계승에 이바지한 인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향후 동시대의 중국 고서들과 조선 후기 이후의 우리나라 의서들과의 의안과 처방에 관한 비교연구 및 우리나라 한의학 역사의 등재된 인물과의 교류와 관련된 의사학적 추후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IV. 結 論

1. 저자 李載建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의 관료이자 儒醫로서 풍부한 학술적 지식, 임상경험 및 사회적 교류를 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2. 《女科大要》는 저자의 생몰 후 후학이 저자의 이름을 가탁하여 발간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록된 의안과 처방

들은 명나라 萬全의 《婦人秘科》을 비롯한 중국 의서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女科大要》의 본문구성은 이론보다는 실제 임상에서 접하게 되는 질병 위주의 편제를 간편하게 구성하여 조선 후기 실용의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女科大要》는 기존 한방부인과 전문서적과 달리 求嗣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것은 儒醫의 진료환경에 기인하거나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5. 《女科大要》에서는 性情과 肥瘦를 중시하여 명나라와 조선 후기의학의 의학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女科大要》에 수록된 한약의 순차적 처방과 저자의 경험방은 추후 연구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7. 《女科大要》에 기재된 ‘難産七條’와 ‘難産問答’을 통해 당시 저자는 분만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 투 고 일 : 2008년 4월 25일

□ 심 사 일 : 2008년 4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10일

#### 參考文獻

1.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인물검색서비스(載建). <http://www.rfo.co.kr>.
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일성록(12816\_0323) 중 고종 24년(1887년 12월 18일). <http://kyujanggak>

- .snu.ac.kr/YDG/ILS\_CONTVIEW.jsp?setid=480432&pos=2&ptype=class&subtype=ils&lclass=year&mclass=1800&year=1887&month=12&day=18.
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議政府總務局官報課(GK17289\_00I0029) 중 고종 34년(1897년 11월 23일). [http://kyujanggak.snu.ac.kr/GAN/GAN\\_SEOJILST.jsp?setid=480436&ptype=list&subtype=02&lclass=17289&mclass=0029&xmlfilename=GK17289\\_00I0029\\_0035.xml](http://kyujanggak.snu.ac.kr/GAN/GAN_SEOJILST.jsp?setid=480436&ptype=list&subtype=02&lclass=17289&mclass=0029&xmlfilename=GK17289_00I0029_0035.xml).
  4. 조선왕조실록(순종실록). 영인본 3책 494면 중 순종 즉위년(1907년 9월 7일).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2&mTree=0&clsName=&searchType=a&query\\_time=%EC%9D%B4%EC%9E%AC%EA%B1%B4&keyword=%EC%9D%B4%EC%9E%AC%EA%B1%B4](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2&mTree=0&clsName=&searchType=a&query_time=%EC%9D%B4%EC%9E%AC%EA%B1%B4&keyword=%EC%9D%B4%EC%9E%AC%EA%B1%B4).
  5. 기창덕. 한의학의 역사. 대한의사학회지. 1999;8(1):11-14.
  6. 한방여성의학편찬위원회. 한방여성의학.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07;4-6.
  7. 김은경 등. 조선후기의 부인과학 발달사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1; 14(1):241-253.
  8. 광금화 등. 방약합편 중통의 부인과처방에 대한 전사과정 고찰 및 부인과 관련 서적과의 비교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1;14(2):170-194.
  9. 이꽃매. 식민지시기 일반인의 한의학 인식과 의약 이용. 대한의사학회지. 2006; 15(2):227-236.
  10. 이종찬. 근대 중국에서 의학의 문화적 체계모니(근대화론자와 신전통주의자 사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1900년대~1930년대). 대한의사학회지. 2003;12(1):13-33.
  11. 신순식. 중국 중서의결합의 발전과정과 정책변화. 대한의사학회지. 1999; 15(1):207-232.
  12. 송병기. 한방부인과학. 서울: 행림출판사. 1986;294-316.
  13. 김호. 조선후기 왕실의 출산 지침서: 름산예지법. 대한의사학회지. 2004; 13(2):348-360.
  14. 박수미. 양자제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 가족구조와 가계계승:의성김씨 호구단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2007;30(2):71-95.
  15. 정우열. 한의학 100년 약사. 대한의사학회지. 8(2):169-186. 1999.
  16. 김정선, 황상익. 1898년도 조선왕실의 의료 연구(태의원일기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학회지. 2004;13(2):219-232.
  17. 여인석 등. 한국 의사면허제도의 정착과정(한말과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학회지. 2002;11(2):137-153.
  18. 신동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 정책(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학회지. 2003;12(2):110-128.
  19. 김남일. 金性璣. 近代史 韓醫學 人物史14. 민족의학신문. 서울: 민족의학신문사; 2007년 3월 30일자 참조. <http://www.mjmedi.com/content/project7/view.asp?tb=project7&num=113&GoTopage=&searchkey=&keyword=&pageno=2>.
  20.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476-479.
  2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官

- 府文書(朝報, 66016) 중 광무 9년(1905년 10월 8일 ). [http://kyujanggak.snu.ac.kr/GMS/GMS\\_VIEW.jsp?setid=483863&pos=0&ptype=class&subtype=02&xmlfilename=gomun11vol\\_0073.xml&mclass=%E6%9C%9D%E5%A0%B1&lclass=02](http://kyujanggak.snu.ac.kr/GMS/GMS_VIEW.jsp?setid=483863&pos=0&ptype=class&subtype=02&xmlfilename=gomun11vol_0073.xml&mclass=%E6%9C%9D%E5%A0%B1&lclass=02).
22. 陳夢雷 等編. 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31-43, 147-157, 218-220, 294-300.
23. 조형래 등. 청강의감 부인과 질환 및 수재 처방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0;13(2):295-325.
24. 許浚. 東醫寶鑑(內景篇 胞門, 雜病篇 婦人門). 서울: 대성문화사. 1992; 168-185(1권), 1-55(4권).
25. 진자명 저, 김동일, 오수석, 이태균 역. 부인대전양방. 서울: 광산출판사. 2003 ;621, 651-654.